

미국, 영국, 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엄 영 애*

<목 차>

- | | |
|--------------------|-----------|
| I. 서 론 | V. 최근의 경향 |
| II. 사서직 교육의 역사적 배경 | VI. 결 론 |
| III. 사서의 자격요건 | Abstract |
| IV. 교육기관 | |

I. 서 론

변화의 가속화가 그 특징중의 하나인 현대 사회에서 변화에 무감각할 수 있는 직종은 없겠으나,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변화의 폭이 어느정도 일지는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우기 사회적 변화 내지는 발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적자원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서들의 주요 임무이므로 그들에게 기대되는 변화에의 대응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록매체를 생산하는 기술의 발전과 그 형태의 다양화, 지식의 세분화로 파생되는 새로운 전문분야의 출현, 출판량의 증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송하는 수단의 숨가쁜 진전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대처해야하는 사서직의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만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해지고 또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서직 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이용자들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더불어 정보이용의 고도화된 기술과 수준은, 사서교육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용자 측면은 사서직의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사서직 교육에서 다루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본 논문은 사서를 배출하는 교육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서교육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과, 미국 문화의 모체국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많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사서의 교육에서만은 미국과 상이한 전통을 지녀온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교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 문화와 교육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두나라의 교육과 우리의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엄밀한 의미의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교도서관학이 채택하는 비교연구방법은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요소로 야기되는 도서관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는 목적은 같은 일들을 다른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거나, 혹은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의도등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비교연구방법이 나타난 현상들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비교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¹⁾ 연구의 목적은 비교도서관학의 것들과 같으나, 본 연구는 문헌과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한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실제 비교의 대상은 사서의 자격요건, 교육기

1) Young Ai Um, "Library Education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Ph. D.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1987), p. 23.

관과 최근의 경향들이고, 교육기관은 정사서를 배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II. 사서직 교육의 역사적 배경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 것은 두 이가 1887년에 콜럼비아 대학에 School of Library Economy를 설립한 때부터로 인정되고 있다. 그이후 미국에서도 사서교육의 임무를 대학원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맡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기를 겪어야 했다.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서 사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견습이나 도제식으로 이미 도서관에서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그것을 배워서 사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1885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므로 사서직의 공식교육 이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서의 자격을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가 아닌 전문단체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의 도서관협회는 오랜 준비 끝에 비록 응시자는 세사람에 불과하였으나 1885년에 첫 사서고시를 실시하였다.²⁾ 이러한 시험제도에 따라서 자연히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들이 생겨났다. 1893년에 영국의 도서관협회가 사서시험의 준비과정으로 여름학교를 연 것이 영국에서 실시된 도서관학의 첫 공식 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 오늘날과 같이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서 제공되는 공식교육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전문직 단체나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들이 사서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과정도 분명히 사서직 교육의 일종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2) Gerald Bramley, *Apprentice to Graduate: A History of Library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Clive Bingley, 1981), p. 16.

3) *ibid.*, p. 42.

것이다.

물론 자타가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몇몇 전문직과는 달리, 전문직이나, 아 니냐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되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서들은 그 들의 직업이 전문직임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문적으 로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문지식은 적어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이 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사서직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듀이의 교육과정은 견습, 혹은 도제방식을 곧바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으 로 옮겨놓은 것이므로 어느정도나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강의 할 수 있었는지에는 의문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도 거의 실습 위주의 교육이 었다고 한다. 듀이 이후의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순탄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듀이의 학교가 설립후 2년 뒤에 뉴욕주립도서관으로 옮겨 간 사 실만으로도 어느정도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교육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의 존재여부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그 교육을 맡느냐 하는 것이었다. 듀이가 졸업생들을 배출한 이후에 사서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들이 실시하였다. 교 육기관들의 수준이 다양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입학자격, 수업기 간, 교수 및 교과과정등이 통일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기야 이를 보다 못한 미국도서관협회가 나서서 도서관학과 인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서 이 기준에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들만을 전문직사서로 인정하게끔 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학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가 1925년에 제정한 도서관학교 최저기준 (The Minimum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은 전문직에 의하여 제정된 첫 국가기준이 었다. 이 기준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도서관학교육에 대한 기준을 따로정 하였다. 1933년에 개정된 기준은, 교육 프로그램을 그 특성에 따라, Type I, Type II 그리고 Type III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가장 높은 형태가 Type I

로, 입학자격을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하고, 1년이나 2년의 도서관학 교육을 하는 학교들로 구성되었다. Type II에 속하는 기관들은 1년 과정의 도서관학 강의를 제공하면서, 입학자격으로 4년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을 요구하였다. 가장 낮은 수준의 Type III은 입학자격으로 4년간의 대학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1년 기간의 도서관학 강의를 하는 도서관학교로 구성되었다. 이 기준의 특징은 전문직 교육의 기준으로 1년간의 전문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⁴⁾ 1951년의 새로운 기준은 기본이 되는 전문직 학위를 석사학위로 결정하고,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을 대학사회에서 학문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대학이 인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한 것이다. 최근까지 적용되어 온 1972년의 기준은 첫 전문직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의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만 적용되는 것들이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초의 공식적인 사서교육이 교육기관이 아닌 국립도서관에서 실시된 것을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보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사서적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어느 한나라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76년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도서관학교기준(Standards for Library Schools)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은 여러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원칙과 운영조건들을 강조했다.⁶⁾ 또한 유네스코도 1976년에, 국가의 도큐멘테이션, 도서관과 기록보존소(Archives)를 포함하는 하부조직과 국가정보시스템(NATIS)의 설립과 개선을 목표로하는 일반정보프로그램(General Information Program)을 채택하

4) Carl M. White, *A Historical Introduction of Library Education: Problems and Progress to 1951*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6), p. 14.

5) Young Ai Um, *op. cit.*, p. 6.

6)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II (November 1976), pp. 209-223.

었다. 국가정보시스템의 계획에는 인력 수급에 관한 목적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있다.⁷⁾

국제적인 수준에서 장려되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는 것이 사서의 교육은 최소한 종합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이는 사서의 교육에, 사서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대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양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사서로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이전에 인간과 지식,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는 교양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사서들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서직의 교육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또한 대학의 교수와 연구의 기능 및 사회봉사 기능이 사서교육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대학내의 다른 학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연구활동과 기타 업적에서 뒤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서직을 배출하는 학과가 무슨 학과이고, 학과명칭에 도서관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는 진부한 논쟁이 된 듯하다. 미국의 경우에 School of Library Economy로 출발한 도서관학교들은 오랫동안 School of Librarianship이라는 명칭을 상당 기간 고수하였다. 도서관을 학과 명칭에 포함시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학과 명칭에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서직을 교육하는 학과 명칭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왔으나, 우리가 사서로 부르는 라이브러리안 (librarian)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이브러리안과 더불어 대두된 정보전문가 (Information Professional)라는 명칭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7) 엄영애, "도서관학 교육의 전망," 圖書館學, 16 (1989. 6), p. 39.

문제는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로부터 교육의 내용이 파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서직교육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또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부터 유래한 사서들의 기능과 역할이 그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기능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가 가속되는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Ⅲ. 사서의 자격요건

사서직 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목표는 궁극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서를 배출하는 것이므로, 사서에게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가?는 사서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서의 자격요건을 법 조항으로 명시해 놓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사서의 자격을 전문협회가 결정하거나 인정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1. 미 국

앞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사서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인가기준을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설립을 신청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기관의 임무와 목적,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교과과정, 교수진, 학생, 운영 및 재정지원 그리고 장비 및 시설등의 제반 사항을 평가하여, 설립을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전문직 사서의 자격을 주고 있다. 1925년에 처음 제정된 이 기준은 1992년에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로 1972년의 기준을 대치하였다.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가 아닌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를 사용한 것이 주목할만하다. 1950년 이전 까지만해도 반드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으나, 1951년의 기준이 인가 대상이 될 교육프로그램을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 명시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서의 자격요건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인가한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도서관/정보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36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소 소요기간은 1년이다.

사서의 자격과 관련 된 것으로, 참고할만한 것이 미국도서관협회가 1970년에 “도서관학교육 및 인력”(Library Education and Manpower)이라는 제목으로 채택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정사서를 Librarian과 Senior Librarian으로 나누고, Librarian의 기본 요건을 석사학위로, Senior Librarian의 기본요건을 석사학위와 적절한 경험 이외에 그 이상의 학위나 박사학위 또는 다양한 형태의 계속교육으로 정하였다. 특기할 것은 이 방침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특성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즉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책임들은 관리를 포함하는 전문적인 책임으로, 이들은 독자적인 판단과 규정과 절차의 적용, 도서관 문제의 분석 및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등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Senior Librarian에게 요구되는 책임들은 경영을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들로 명시하였다.

2. 영 국

현재 영국의 사서 자격은 도서관학과의 전통을 갖고있는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에 현재 사서들을 배출하는 학과의 명칭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서를 배출하는 학과의 명칭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교육기관의 인가제도는 없으나 도서관과 정보과학 분야의 학·협회는 교과과정의 인가권을 갖고 있다. 1885년부터 도서

관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전문직 사서로 인정되던 제도에서, 현재에는 도서관/정보학관련 학과에서 도서관협회와 정보과학회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가 인가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학위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된다. 미국과 달리 석사학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와 석사 모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1987년 이전에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사서로 인정하지 않고, 졸업 후 1년 간 공인 사서의 감독 하에 도서관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사서로 인정하였다. 즉 1년 동안은 도서관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도서관에서 봉사한 후에 Licentiate가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 등급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사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현장의 훈련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협회는 현장의 철저한 지도, 훈련이 사서의 전문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⁸⁾ 현재 영국의 사서교육제도는 자격은 교육기관이, 인정은 학·협회가 나누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사서 자격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 Associate of Library Association(A. L. A.)와 Fellow of Library Association(F. L. A.)다. 미국도서관협회와 혼동될 수 있는 A. L. A.는 사서의 명칭으로, 현재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표 1>과 같다.⁹⁾ 사서로서는 최고의 명칭인 F. L. A.는 A. L. A.가 된 후에 소정의 계속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성취를 증명하거나, 인정 받을 만한 출판물을 내고 Fellow들로 부터 추천을 받아야 될 수 있다.¹⁰⁾

8) David W. Bromley and Angela M. Allot, ed. *British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Work, 1986-1990*, Vol. I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92), p. 211.

9) David W. Bromley and Angela M. Allott, ed., *British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Work 1981-1985*, Vol. I.(London: Library Association, 1988), p. 234.

10) *ibid.*, p. 233.

〈표 1〉 Associateship의 자격취득방법

요건	Route A	Route B	Route C	Route D
과정	협회인가	협회인가	협회인가	대학졸업 수준
경험	과정후 1년	과정후 2년	과정 마치고 6년(과정은 1년으로 계산)	전문직수준 업무 5년
인가 훈련프로그램	○ 1년	×	×	×
전문적 개발보고서	○	○ 훈련의 필요 성에 대하여	○ 훈련의 필요 성에 대하여	○ 전문직 수준 5년간을 다툼
회원자격	1년	1년	1년	1년
추천	공인회원 2인	공인회원 2인	공인회원 2인	공인회원 2인

3. 한 국

1963년에 제정된 구도서관법은 사서의 자격을 준사서와 정사서로 구분하였으나,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준사서, 2급 정사서 그리고 1급 정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상당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사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2급 정사서는 소정의 도서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1급 정사서가 될 수 있다.

IV. 교육기관

사서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하는 제도가 이제는 보편화 되고 있으나, 어느 수준의 교육기관이 교육을 맡느냐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1. 미 국

현재 ALA로 부터 인가를 받은 사서 교육 프로그램은 57개 종합대학의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그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의 대학은 49개교이다. 인가교가 70개교였던 1982년에 비하면 그 수는 많이 줄었다고 볼수 있다. 특히 Columbia와 Chicago대학교의 우수한 명문 도서관학교를 위시한 여러 곳의 폐교는 도서관계 종사자와 도서관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3년 Brigham Young University의 프로그램이 폐쇄된 후 아직은 폐교 소식이 없고, 오히려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

도 있다.¹¹⁾ 또한 학교 수는 줄었으나 1990년 대의 입학생, 재학생 및 학위취득자의 수가 1980년도에 비교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미국의 학위취득자¹²⁾

1965/60	1975/76	1985/86	1995/96
3,939	8,037	3,626	4,745

학과의 명칭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더러는 도서관을 빼버린 경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서관을 그대로 포함시키고 있다.

〈표 4〉 미국과 캐나다의 사서교육기관 명칭

학 교 명 칭	수
College of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1
College of Information Studies	1
Colle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
Colle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1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
Di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Facul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Faculty of Library Science	1
Graduate Library School	1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1
Graduate School of Librarianship	1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
Graduate School of Library Services	1

11) Prudence W. Dalrymple, "The State of the Schools," *American Libraries*, XXVIII (January 1997), p. 31.

12) *ibid.*, p. 32.

학 교 명 칭	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1
Schoo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1
The School of Information	1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1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stems	1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1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olicy	1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1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1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7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	1
School of Library Science	2
School of Library Science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1
합 계	57

57개교 가운데 명칭에서 Library를 제외한 학교는 8개교이다.

2. 영 국

아이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의 사서직 교육프로그램은 19개 종합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1970년 대부터 최근까지 Polytechnic으로 불리우던 대학들이 현재는 모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미국의 경우, 교육기관의 수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오히려 숫적인 면에서는 1980년도의 17개교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되었다. 사서와 정보전문인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국의 사서교육기관 명칭

학 과 명 칭	수
Business School (Liverpool)	1
Center for Information Management	1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1
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	1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Library Management	1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2
Department of Information Science	2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1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
School of Finance and Information	1
School of Information and Media	1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udies	1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1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
School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1
합 계	19

주목할 것은 19개교 중에 학과의 명칭에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7개 학과 뿐이고 Library Science보다는 Library Studies를, Information Science보다는 Information Studies를 선호하는 것이다.

3. 한 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사서의 자격요건에 따라 사서직의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의 도서관학과와 문헌정보학과를 포함하여 교육대학원, 그리고 지정교육기관이 있으나 학부에 설치된 학과들이 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의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는 전국에 32개 대학에 개설되었고, 이는 1980년대에 비하여 2개 학과가 증가한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석사과정은 17개 학과에, 박사 과정은 6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도 2개 대학이 사서교육원을 설치하였다.

V. 최근의 경향

1. 미 국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과목명과는 다소 다르지만, 정보학 관련 교과목(예. *Data Processing for Libraries*)들을 도서관학 교육기관이 개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이고, 학과의 명칭이 정보학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현상으로 이제는 거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정보학을 학과명칭에 포함하고 있다. 1972년에 ALA가 새로운 인가기준인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를 내놓았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붐을 이루고, 도서관학 교육기관들도 번성했던 시기로 볼 수있다. 도서관학교의 폐교는 1970년대, 정확히는 1978년에 발생했지만 폐교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1980년대에서 부터 1990년대 초반에 단안을 내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한세대 동안 사서직의 교육은 전성기와 아울러 쇠퇴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30년 동안의 경향은 또한 박사과정이 증가한 것, 학부과정을 만 들려는 시도, 다른 분야, 주로 경영학이나 컴퓨터 분야와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려는 노력, 도서관학 학위의 명칭을 다양하게 시도(예, 정보관리석사 혹은 도서관정보학석사)해 온 것이다.¹³⁾

즉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는 없으나,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학부의 과정

13) Richard K. Gardner, ed.,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Present and Future Prospects*(Littleton,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1987), p. 12.

으로 개설하는 움직임이 있다. 사서직 교육의 취약성이 학문분야가 학부과정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학부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피츠버그 대학교의 정보학 학사과정의 개설이고,¹⁴⁾ 학부프로그램이 일반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¹⁵⁾ 다른 학과들과 협력하여 Joint Degree나 Combined Degree를 수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자들에게 양과에 동시에 지원하여 입학한 후에 각각의 학과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두 프로그램 이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단위로 만드는 것도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2년에 만들어진 Rutgers University의 Schoo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SCILS)이다.¹⁶⁾

Daniel에 따르면 미국 사서직교육의 경향은 도서관/정보 분야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게 된 것, 다시 말해서 도서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디에서 발생하건 관계없이 모든 정보관리 분야를 포함하게 된 것; 정보학을 하나의 연구분야로, 또한 전문직을 위한 하나의 교육기반으로 발전시킨 것; 컴퓨터/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교과과정에 통합된 것등이다.¹⁷⁾

미국도서관협회는 1992년에 인가기준을 개정하여 “New Standards for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92”로 내놓았다. 1993년 1월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인가기준에 따라 앞으로 재인가를 신청할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의 검토와 더불어 교과과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14) *ibid.*, p. 45.

15) C. D. Hurt, “The Future of Library Science in Higher Education: A Crossroads for Library Science and Librarianship,” *Advances in Librarianship*, XVI (1992), p. 178.

16) Dalrymple, *op. cit.*, p. 33.

17) “Changes in Library Education: The Deans’ Reply,” *Special Libraries*, LXXVII (Fall 1986), p. 223.

2. 영 국

사서직의 교육을 도서관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대비시키는 과정으로 출발시킨 영국의 도서관계는 사서의 자격 취득을 시험이 아닌 공식적 교육과정을 거쳐서 가능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왔다. 종합대학교 Polytechnic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이전에는 1919년에 설립된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School of Librarianship and Archives가 오랫동안 유일한 종합대학의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이었다. 도서관학의 학위를 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생긴 후 부터, 영국의 도서관협회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실무경험을 거친 후에 사서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사서의 자격을 학위 소지자에게 국한시켰고, 현재에는 시험제도가 아닌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자격을 얻도록 정착시켰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1980년대부터 학과의 명칭이 다양하게 바뀌어 도서관을 학과명칭에 포함시킨 경우는 19개 학교중 7개교에 불과하다. 1980년 대에는 여러 학교들이 Librarianship에서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tudies로, 1990년도에는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혹은 Librarianship을 아주 빼버린 경우도 있다.¹⁸⁾

이러한 변화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인 발전에 대한 대응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통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학을 기반으로 했던 학과에서 보다 포괄적인 학부체제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학과와 통합하려는 시도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으며 주로 기술분야와 합쳐졌다.¹⁹⁾ 따라서 정보기술에

18) Ian Johnson, "Peering into the Most and Struggling through IT-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Future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XXIX (March 1997), p. 3.

19) Bromley and Allot, *op. cit.*, p. 212-213.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매력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와 관련된 폭넓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판, 도서판매도 교과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졸업생들의 취업분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보학과 컴퓨터기술을 학과의 교육에 많이 결합시키려는 시도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분야의 석사학위 프로그램도 개설되었다.²⁰⁾ 학부과정의 교육도 타과와 협력하여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사서와 정보전문인들을 배출하는 학과들은 대부분 건재하고 학과명칭은 다양하지만 도서관학과의 전통을 지닌 학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있다. 사서직 교육에 국한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사서직 교육기관과 관련이 이는 것으로, 50여개교에 불과하였던 종합대학의 수가 Polytechnic들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함으로 100여개로 늘어난 사실이다. 따라서 사서직 교육은 종합대학이 맡게된 것이다.

3. 한 국

1980년대에 도서관학과의 교수들이 그 당시 도서관학 교육의 경향으로 인정한 것들은 도서관자동화의 강조, 정보학의 통합, 사서교육을 전문화하지 않는 것, 즉 주제나 기능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시도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정보기술의 통합으로 나타났다.²¹⁾

도서관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보학이 도서관학에 통합될 것, 도서관봉사와 관련된 과목들이 증가할 것, 학생들의 주제 배경에 따른 전문화 교육, 석,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증가 및 대학교 내의 타과와의 협력 증대로 예

20) Johnson, *op. cit.*, p. 4.

21) Um, *op. cit.*, p. 229.

측되었다.²²⁾

1980년대의 경향들은 현재의 경향으로도 받아들이는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뚜렷한 변화는 1984년 부터 발생한 학과 명칭의 변경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바뀌었다.

1990년대에는 학부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향도 보이나, 이는 대학교육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학과의 의지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볼 수 없다.

1963년에 제정된 후에 1987년도에 처음으로 개정된 후, 1991년과 1994년에 연이어 개정된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사서 자격요건의 변화는 분명히 사서직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예측한대로 석,박사 과정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학부과정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학과 명칭의 변경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의 증가로 도서관자동화는 이제는 거의 보편화 된 현상이므로,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에도 정보학 뿐 아니라 정보기술 과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다른 학과들과 협력하는 공동노력을 하거나 통합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VI. 결 론

세나라의 사서자격, 교육기관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비교할 때에, 모두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의 새 인가기준과 영국 학과들의 변신,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격요건등이 대표적 예들이다.

22) *ibid.*, p. 242.

사서직 교육이,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던 관계없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면한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형성되고 변화됨으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세 나라의 교육에서,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이외에 뚜렷한 유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서의 자격요건에서는 우리나라의 요건과 영국의 것이 미국의 석사학위보다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도서관협회나 정보과학회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인가를, 영국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의 인가를 담당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의 또하나의 특징이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문직이 수행할 봉사의 증진을 위한 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협회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은 꽤 다양할 수 있다. 물론 협회가 갖고 있는 힘이 회원들인 사서들의 결집된 직업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협회는 적어도 사서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느끼고 있는 갈등의 공동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협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도서관이나 정보관리 분야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결집된 경험의 결과가 사서 교육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전문직 사서에게 요구되는 학력은, 미국이 석사학위, 영국은 학사학위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전문학교 졸업자들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정사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전문직에 요구되는 학력은 사회적 요인 내지는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으나, 어느 사회에서든 사서들이 기록된 지적자원을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는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일반인들의 학력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용자들이 전문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봉사를 의뢰할 것이다.

본 연구의 원래의 의도는 아니나, 도서관의 수나 봉사등의 다른 상황들은

차치하고, 교육기관의 숫적인 면만 단순 비교를 하여도 영국보다는 우리의 수가 훨씬 많고, 미국과도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서의 수요 공급 차원은 무시하고 교육프로그램만을 만들어놓은 결과이다. 사서직의 수요 차원을 도외시하고 교육을하여도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으로 가르치는 쪽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전문직의 교육적인 면에서 고려할때에는 커다란 낭비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양적인 팽창은 지양하고 우수한 사서직을 양성하는 질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원 과정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소위 전문화된 사서 교육제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의 사서교육은 학생들의 학부 전공과목을 전제로 함으로 적어도 그들 전공주제분야의 전문직 사서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학부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와 협력하여 Joint Degree를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의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서들을 해마다 천여명씩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 학과가 속해있는 대학교나 교수진들의 배경과 경험, 연구분야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사서직 교육을 시도할 때가 온 것 같다. 혹은 학생들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제도를 이용하여 전문분야에 종사할 사서의 배출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서직 교육프로그램의 폐교 원인에 대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주장은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직과의 접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직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무감의 부족; 무의미한 이론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실제 현장에 관련된 것은 거의 배우지 않은 졸업생들의 배출이라는 것이다.²³⁾ 우리

23) Daniel O'Connor and J. Philip Mulvaney, "LIS Faculty Research and Expectations of the Academic Culture versus the Needs of the Practitioner",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XXXVII(Fall 1996), p. 313.

도 귀담아 들을만한 말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내세워서, 사서직교육 변화의 정당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변화에의 대응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사서들 본연의 임무를 등안시 할 수 있다. 사서직 교육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하여도 사서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Berring은 “사서들은 늘 같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들은 정보를 모아, 축적해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두고, 그것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정보시대”가 왔다고, 그러한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구가 다른 것이다. 도서관학교의 교육은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고 포함하도록 적응해야 한다. 과거에, 훌륭하게 봉사해온 정보조직의 개념과 봉사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된다. “라이브러리안”이라는 용어가 정보관리자와 같은 새로운 용어로 대체됨에 따라서 도서관학 교육은 그 부분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은 비즈니스나 컴퓨터학 프로그램의 졸업생들로 채워질 것이다. 기회는 바로 그곳에 있다. 모든 기회와 마찬가지로 기회는 위기도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했다.²⁴⁾

Paris 역시 사서직의 봉사요소가 몇몇 도서관학교가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려고 서두르는 바람에 잊혀진 것 중의 하나이나, 사서직이 기반으로한 초석이 된 이 봉사는 것은 전문직의 독특한 일면이고, 도서관학교들이 생존하려면 금지와 새로운 강조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²⁵⁾

이들 모두가 사서직의 고유한 특성인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직종과 구분되는 사서직의 특성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 명칭이야 바뀔 수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도서관이 하고있는 일들을 수행할 기관들은 우리와 함께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사서들이 하는 일들을 할 사람들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찌면 사

24) “Changes in Library Education,” p. 220.

25) Marion Paris, *Library School Closings: Four Case Studi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3), p. 153.

서들의 책임이나 의무가 더욱 가중되고,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 언급된 변화에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한층 복잡해 질 것이 분명하므로, 사서직의 교육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사서직 교육이 학생들을 졸업 후에 도서관에서만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상황이거나 간에 라이브러리언으로 일을 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추세가 강하다.²⁶⁾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Ostler과 Dahlin, 그리고 Willardson은 그들의 최근 저서인 "The Closing of American Library Schools"에서 새로운 사서상을 제안하였다. 문화용사 (cultural warrior)로 불릴 새로운 타일의 사서들은 인쇄, 전자, 마이크로 형태의 정보에 관한 모든 지식과 판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이기심을 버리고 지적자유에 헌신하면서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정보요구에 봉사함으로써, 중요한 지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다.²⁷⁾

사서직 교육의 당면 목표가 특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서의 배출임으로 어느 사회에나 적용될 수 사서의 자격이나, 사서직 교육의 모델은 있을 수 없겠으나 바람직한 사서의 상은 어느정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미래의 사서의 임무를 제안하면서 염두에 두고있는 사서직의 개념과 사서직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것들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이 제시한 수준의 봉사나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증대되고, 그것을 다루는 사서직에게 주어진 역할과 중요성도 만족할만한 정도는

26) O'Connor and Mulvaney, *op. cit.*, p. 315.

27) L. J. Ostler, T. C. Dahlin and J. D. Willardson, *The Closing of American Library Schools: Problems and Opportunities* (Wesport, CT: Greenwood Press, 1995), p. 71.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서직의 개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서직의 교육에 명심할 것은, 그들의 고유 임무가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하는 데이터, 정보, 지식, 자료에 직접 접근해서 이용토록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록자료의 활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서들이 이러한 임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기관들의 숭고한 과업인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 A Comparative Study

Young-Ai U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situ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by comparing libr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The qualifications of librarian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resent trend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three countries are described and compared. It was not intended to find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e three countries share no similar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Compared with the education of the two countries, Korea has more ways to qualify librarians, more library schools, and lower academic levels for librarians. Library Associations or Institutes of the U. S. A. and the U. K. are involved in library education by accrediting library schools or library school curricula, bu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has nothing to do with library education. In case of present trends in library education, Korean institutions seem to lag behind in coping actively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modern society. Based on the findings, som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